

신년특집

직장·직능법회 현황

지도법사 교육프로 법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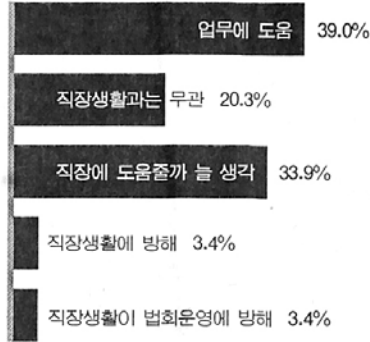
절대 부족

련의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는 곳은 6곳에 불과했다. 법회 공간이 있는 경우 17곳은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 사찰이나 불교회관에서 법회를 병행하고 곳은 22곳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들은 법회가 업무에 도움이 되며(39.0%), 직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한다(33.9%)고 답해 직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직장 및 생업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무형의 만족감과 법회를 통한 인적네트워크의 확립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 비용은 대부분이 회원의 월회비로(86.4%) 충당되고 있으며, 월회비는 대부분 3천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회사 및 인근사찰의 도움을 받는 곳은 28.8%에 그쳤으며, 회사지원의 경우 분기별 성금순례 및 특별행사시 20만원에서 50만원선이었다. 사찰지원의 경우는 대부분 장소 및 식사와 간단한 의식집 제공에 머물러 사찰과의 연계가 긴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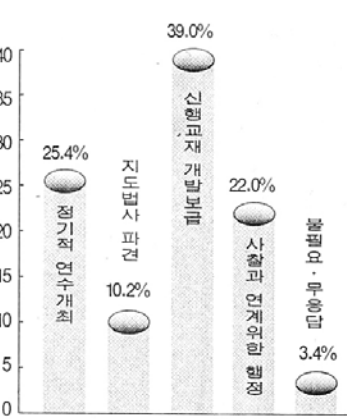
1년 동안의 재정 규모는 10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큰 편차를 나타냈다. 평균액은 1천1백60만원 정도였으며(가장 많은 부산불교실업



법회의 직장기여 여부



지도법사 부재이유



중단차원의 시급한 지원형태

직장·직능법회는 사회 속에서 개인 수행과 포교 및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본지는 지난 10월 창간 2주년 기획특집(88호)으로 전국의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직장·직능법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구립 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7개 직장·직능법회를 대상으로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회수량은 118곳(직장96, 직능22)이었다.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직장·직능법회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장·직능법회는 지도법사·법회공간·교육프로그램이 없는 '3무(三無) 현상'으로 법회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직장·직능법회가 업무에 도움이

이 되며, 법회를 통해 직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를 늘 생각한다고 밝혀 직장·직능법회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직장·직능법회는 지도법사 없이(52.5%), 법회를 병행할 마땅한 장소도 없이(61.9%), 신입회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도 없이(61.0%), 월평균 1회의 법회(37.3%)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들은 중단차원에서 직종별 지역별 연수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마련과(88.2%) 신행프로그램과 교재의 지원(39.0%) 및 인근 사찰과의 연계(61.0%)를 요청했다.

사찰 연계프로 필요

직장·직능법회의 실행형태는 정기법회와(20.3%) 사찰순례(22.0%)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도 영불 등 수행과 교리학습을 하는 곳은 극소수에 그쳤다. 정기법회와 함께 강사를 초빙해 강좌를 진행하는 형태도 11.9%에 이르러 새로운 법회운영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가운데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은 사찰순례(61.0%)가 단연 높았으며, 정기법회(20.3%) 강사초빙 강좌(11.9%)의 순이었다.

그러나 법회 또는 각종 모임에 회원들의 참석율은 62개 법회(52.5%)에서 절반을 넘지 못

사찰순례 '인기'...교리학습·기도 관심 저조 '월1회 정기법회' 가장 많아...회원 열의 부족 '애로' 중단차원 연수교육·법사파견·교재개발 등 '절실'

한다고 답해 참석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 또는 80%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곳은 47.5%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지도법사가 없는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도법사가 있는 경우 절반 이상이 참석한다는 38.1%를 기록한 반면 지도법사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 참석율은 4.0%에 그쳐 지도법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법사는 있는 곳(47.5%)보다 없는 곳(52.5%)이 더 많았으며, 지도법사 부재 이유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는 응답이 48.4%였으며, 재정형편상 모시기 어려운 경우도 35.5%였다. 대부분의 법회에서 지도법사를 모시고 싶어도 여의치 않아 중단과 사찰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도법사가 있는 경우에도 신입회원

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40.0%로 지도법사가 없는 경우의 42.9%보다 낮아 지도법사가 있는 곳이라도 법문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 직장·직능법회의 회원들은 수계를 비롯한 입문과정도 거치지 않은 '지침 불자'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어도 신입회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문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회병행 횟수는 57.6%가 월 1회로 가장 많았으며, 월 2회(8.5%), 년 4회 또는 부정기적(22.0%)이라고 답해 대부분의 법회가 느슨한 운영형태를 띠고 있다. 주 1회는 11.9%에 그쳤다. 그러나 바람직한 법회병행 횟수는 월 1회(37.3%) 월 2회(33.9%) 매우 병행(25.4%)으로 최소한 월 1회 이상의 법회병행을 희망했다. 회원들의 연령은 40대(62.1%) 30대(24.1%) 50대(12.1%) 20대(1.7%)의 순이었으며, 성비율은 비슷한 분포(남 54.2%, 여 45.8%)로 조사됐다. 또 불교입문 했수는 5년~10년 이내가 60.3%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내는 16.9%, 1년 이내 초심자는 13.8%였다. 법회 공간의 미비도 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인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이 훨씬 넘는 73곳(61.9%)이 법회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불상과 탕화를 모시고 모임 때마다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으며, 향후 법당 마

인회의 1억2천만원을 제외한 평균액은 922만4천원), 26곳은 공개를 꺼렸다. 조사대상 118곳의 전체회원수는 1만7천954명(남9,738 여8,216, 평균 회원수는 146.7명)으로 각 법회의 창립 당시보다 두배 이상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20곳(16.9%)의 법회는 창립 때보다 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대부분 회비로

이에 대해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들은 회원들의 감소와 참석율이 저조한 원인을 실행프로그램 부족(8.5%) 또는 재정공립(5.1%) 근무지 이동(5.1%)보다는 회원들의 열의부족(35.6%)과 시간부족(32.2%)에 있다고 지적해 내적인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들은 조계종 포교원 등에서 직장·직능 법회를 위한 연수회가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들은 비슷한 직장·직종별 연수(49.2%) 또는 지역별 연수(39.0%) 개최를 희망했다. 또 중단차원의 지원은 신행프로그램 및 각종 교재의 개발과 보급(39.0%)이 가장 시급하며, 각종 연수회 개최(25.4%), 인근사찰과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도(22.0%), 지도법사 파견(10.2%)의 순으로 꼽았다.

정성운 기자

- 1. 귀 법회 회원들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1)20대(1.7%) 2)30대(24.1%) 3)40대(62.1%)
4)50대(12.1%) 5)무응답(1.7%)
2. 회원들의 불교입문 했수는?
1)대부분 1년 이내의 초심자(13.8%)
2)대부분 3년 이내(16.9%) 3)대부분 5년 이내(24.1%)
4)대부분 10년 이내(36.2%) 5)대부분 10년 이상(1.7%)
6)무응답(1.7%)
3. 법회 또는 기타 모임에 회원들의 참석율은?
1)절반을 넘지 못한다(52.5%) 2)절반 이상은 참석한다(40.7%)
3)인원 80% 이상 참석(6.8%)
4. 법우님의 단체에 지도법사가 있습니까?(형식적인 경우는 '없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있다(47.5%) 2)없다(52.5%)
5. 지도법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는?
1)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16.1%)
2)마땅한 사람이 없었다(48.4%)
3)재정형편상 모시기 어렵다(35.5%)
6. 지도법사가 있다면 스님입니까, 재가법사입니까?
1)스님(82.2%) 2)재가법사(17.8%)
7. 창립 이후 지도법사에 변동이 있었다면, 지도법사 평균 재임기간은?
1)6개월 이내(6.8%) 2)1년 이내(1.7%)
3)1년6개월 이내(3.4%) 4)2년 이상(11.9%)
5)변동없었다(37.3%) 6)무응답(39.0%)
8. 별도의 법회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1)사무실 임시 사용(14.4%) 2)사찰 또는 불교회관(18.7%)
3)향후 마땅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5.0%) 4)없다(61.9%)
9. 법회운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1)80% 이상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86.4%)
2)회장을 비롯한 몇 명이 부담(3.4%)
3)수익사업, 특별회비 등(3.4%)
10. 회사 또는 사찰의 지원 유무
1)있다(28.8%) 2)없다(71.2%)
11. 지난 1년 동안의 재정중 가장 많은 도움을 얻었던 수입원 형태는?
1)장래회비(71.2%) 2)특별회비(10.2%)
3)찬조금(8.5%) 4)수익사업의 이익금(3.4%)
5)회사(사찰)지원금(3.4%) 6)무응답(3.4%)
12. 법회를 병행하는 횟수는?
1)일주일에 1회(11.9%) 2)월 1회(57.6%)
3)월 2회(8.5%) 4)분기별 또는 부정기(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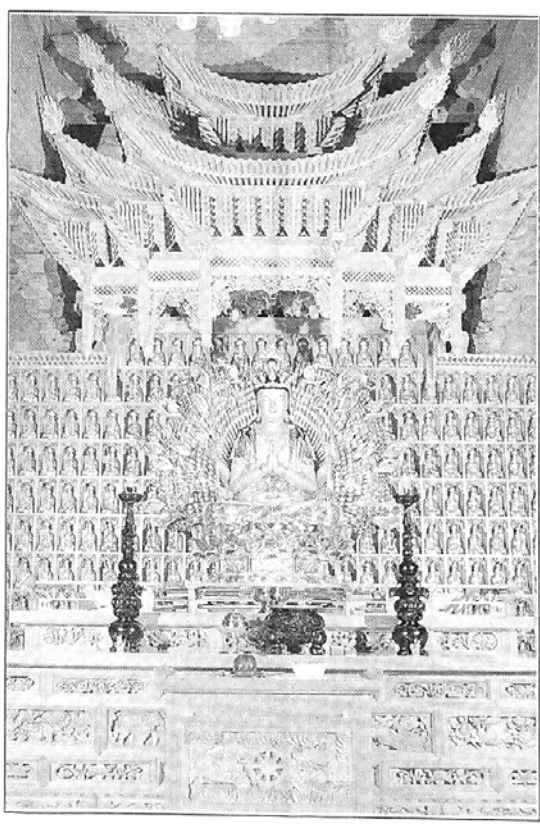
직장·직능단체장 설문내용

- 13.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법회 병행의 횟수는?
1)일주일에 1회(25.4%) 2)월 1회(37.3%)
3)월 2회(33.9%) 4)분기별 또는 부정기(1.7%)
14. 법문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1)스님(84.7%) 2)재가법사(8.5%)
3)없다(3.4%) 4)무응답(3.4%)
15. 법회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1)재정공립(5.1%) 2)시간부족(32.2%)
3)법사부족(3.4%) 4)회원들의 열의 부족(35.6%)
5)신행프로그램 부족(8.5%) 6)회사측의 이해 부족(1.7%)
7)근무지 이동(5.1%) 8)무응답(8.5%)
16. 중점적인 실행형태는?
1)정기법회(55.9%) 2)사찰순례(22.0%)
3)기도(3.4%) 4)영불(3.4%)
5)교리학습(1.7%) 6)강사초빙해서 강좌진행(11.9%)
7)무응답(1.7%)
17. 위 질문의 예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은?
1)정기법회(20.3%) 2)사찰순례(61.0%) 3)기도(1.7%)
4)정기법회와 함께 강사초빙해서 강좌진행(11.9%)
18. 신입회원 및 초심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1)입문서를 중심으로 교육(27.1%)
2)교재없이 간단한 안내(52.5%)
3)신인·기성회원 구분없이 '질문 17'의 답변처럼 진행(8.5%)
4)무응답(11.9%)
19. 기성회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있습니까?
1)있다(11.9%) 2)없다(84.7%) 3)무응답(3.4%)
20. 귀 법회가 직장에 어떤 점에서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1)업무에 도움이 된다(39.0%)
2)직장생활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20.3%)
3)직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한다(33.9%)
4)오래된 직장생활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3.4%)
5)직장생활이 신앙활동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3.4%)
21.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연수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1)지역별 연수 및 모임이 활발해야 한다(39.0%)
2)비슷한 직종·직장별 모임이 활발해야 한다(49.2%)
3)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3.4%) 4)무응답(8.5%)
22. 중단차원에서 직장·직능법회에 대해 지원한다면,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연수를 비롯한 회합을 자주 개최(25.4%)
2)지도법사의 파견 (10.2%)
3)신행 프로그램 및 각종 교재의 개발, 보급(39.0%)
4)지역 해결 가능하므로 지원이 불필요하다(1.7%)
5)인근 사찰과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22.0%)
6)무응답(1.7%)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명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무실 (02) 738-8447~8
공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